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박영돈 교수,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박영돈 교수
한국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5 차례의 준비 모임 끝에 드디어 2016 미래교회포럼(이하 미포)이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를 주제로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당에서 5일 시작되었다. 미포 대표인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는 기초 강의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 목사는 『리 스트로벨의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이 나오는 ‘로니 브론스키’의 예를 들면서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신칭의 복음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그 복음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체험하며,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했다. 이번 포럼은 소위 교회 성직의 비법을 전수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이신칭의 라는 신학적 논쟁에 관한 포럼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할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참석자들은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칭의론은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

로 박영돈 교수의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다. 박영돈 교수는 이신칭의가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이라는 말들이 있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오해와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칭의론이 성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윤리적인 방종과 나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은 16세기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향해 퍼부었던 비난이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3권을 언급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아무도 칭의와 성화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이 회개와 성화를 동반할 없이 칭의의 효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안 된다. 그 믿음은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참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칭의 뿐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된다.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신앙생활 전 과정에 걸쳐 항상 함께한다. 따라서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화 없는 칭의’만 경험할 수 없고, ‘성화 없는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도 없다.”

박 교수는 칼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 병행된다.”며, “**성화 없이 칭의에 근거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회개,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

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곡해한 이단적인 발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칼빈이 가장 혐오하며 경계했던 오류가 칭의 교리가 교회의 타락을 조장하는 방종의 라이선스로 해괴하게 변질되는 것이었다. 칼빈이 칭의론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주력했던 점이 이 교리가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그는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로 그런 오류를 원천에서 봉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것이 작금에 일어나는 칭의론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케 한 주범이 종교개혁의 칭의론 인양 말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론의 기본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분명한 반증이다. **고만큼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의 구원론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나와 같은 신학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왜곡된 구원론은 부실한 신학교육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여 믿고 성화의 의미와 가치는 기껏해야 죽은 후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라고 진단하며, 이런 가르침은 “칭의론이 성화의 열매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방종의 라이선스로 오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잘못된 칭의론은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 교리를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 결코 그 교리가 가르

치는 바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교수의 논지는 오늘날의 칭의론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개혁자들의 칭의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칭의의 복음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제대로 설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면죄부로 왜곡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영광과 풍성함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온전히 드러내미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메시지의 단조로운 반복이 거짓 확신과 윤리적인 혼란을 기중시킨다.**”

박 교수는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고대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칭의의 복음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박 교수는 김세운 교수의 강의를 염두에 두고 전통적 칭의론과 김세운 교수가 주장하는 칭의론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이 부분은 김세운 교수의 강의를 다루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고자 한다. 포럼 첫째 날 박영돈 교수와 김세운 교수의 발제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두 교수의 강의를 통해 ‘복음의 부활’이라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출처: 코람데오닷컴
<http://m.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5>

김세운 교수, 칭의와 성화 분리 될 수 없다



김세운 교수
미국 줄리안 신학대학원 교수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 2016 미래교회 포럼이 5일과 6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연동교회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첫째 날 박영돈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세운 교수가 “사도바울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김세운 교수는 바울 신학 연구의 100여 년 역사를 큰 틀에서 조망하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칭의론 논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제시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김 교수에 의하면, 1980년 대 나타난 바울 신학의 새 관점 학파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관심으로 칭의를 논하는 데서 나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새 관점 학파는 ‘행위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통합되느냐?”가 새 관점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관점 학파는 성화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성화와 윤리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자신의 칭의론은 새 관점 학파와는 다르다며, 자신의 칭의론은 신학적으로 옛 관점 학파에 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강의를 쉽지 않았다. 깊이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칭의론에 관련된 바울신학을 폭넓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했다. 이틀에 걸쳐 그는 세 가지의 통합과 연결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 칭의의 복음’의 관계

첫째는 복음서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서신서의 ‘바울 칭의론’의 통합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과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의 죽음과 부활에 비추어 재해석한 신앙고백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고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병 노릇을 하게 하고 죽음으로 그 값을 준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나라 용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것이 칭의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로새서 1:13) 이것이 구속이요 해방이요, 이것이 죄 사함이다. 죄 사함은 칭의의 소극적 언어이다. 복음서는 죄 사함의 용어를 쓰지않고 바울은 칭의라는 말을 주로 쓴다. 칭의는 죄 사함의 적극적 언어이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칭의’와 ‘성화’ 구원론의 병행 언어이다.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의 통합이다. 김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의 상황에서 율법의 행위에 맞서 구원의 은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기

를 원할 때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3장 등에서 ‘칭의’(dikaioo/ to justify)의 언어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상의 오염으로 볼 때는 구원을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다. 성화는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짐(그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김 교수에게 “칭의”와 “성화”는 병행적인 구원론의 그림 언어들이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세운 교수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면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 윤리와 분리되는 칭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칭의와 성화의 통합은 칭의 복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가 될을 의미한다. 칭의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칭의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의인이라 칭함을 한 번 얻으면 얻은 사람은 자신 안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지닐 수 있는 무슨 자질(의)이나 자격증 (license)을 갖게 되기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의 통합이다. 김세운 교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칭의의 통합, 칭의와 성화의 통합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통합을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것은 맘몬 주의로 나타난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남을 착취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 정직하게 신

실하게 사하면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느냐?’ ‘주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느냐?’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의 열매가 맺힌다.”

세 가지의 통합을 통해 김 교수가 강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칭의론의 관계적 의미였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의 탈락에 대한 경고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질의 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과 논쟁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바울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무서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 부분을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김 교수는 “자기 교단의 신조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중세 스콜라 신학이고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라며,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코람데오닷컴
<http://m.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RTM(Restoring Truth Media)에서는 작년 12월 5-6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신학 포럼의 내용을 코람데오닷컴(<http://m.kscoramdeo.com>)의 협조를 얻어 미국 내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관심도를 위해 본 신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RTM(Restoring Truth Media)은 미디어를 통해 진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선교단체입니다. 동성애 문제로 혼란에 빠진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약 2년에 걸쳐 제작한 첫 작품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https://youtu.be/XB5fm1KJvps>) 다뤘는 2016년 1월 초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현재 백만 명 이상이 시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미디어를 제작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육한을 목사님): <https://youtu.be/sRtFg46VR>. 주를 보지 못한 교인들(박영돈 교수님): https://youtu.be/-PscLk_PUo,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박영돈 교수님): <https://youtu.be/RcTJmGhZMQ>

